

“사람들 즐겁게 해주는 게 예술 아닐까요”

미리 보는 2016 광주비엔날레

〈3〉 참여작가 인터뷰-애니 라이 군 완

홍콩 출신...빛고을창작촌서 손동진 명장과 협업

저금통·아기젓병 등 생활용품 도자기로 만들어

인근 상가 5곳에 전시...지도 보며 찾는 재미도

“예술은 사람들을 즐겁게 만들어야해요. 막연히 작품만 전시하는 게 아니라 사람들과 소통하고 같이 어울리는 게 예술이라고 생각해요.”

최근 광주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만난 애니 라이 군 완(여·55·Annie Lai Kuen Wan)은 차분한 말투와는 달리 웃음기 가득한 눈매가 인상적이었다.

작업실 중앙에 놓인 테이블 위로 돼지저금통, 신발 등 아기자기한 청자작품들이 눈에 띄었다. ‘2016 광주비엔날레’ 참여작가인 그는 “이번 비엔날레에 전시될 작품이다”고 설명했다. 홍콩 출신 애니 작가는 그동안 생활 속 소재들을 도자기로 재탄생시키는 작업을 펼쳐왔다. 각양각색 통조림캔, 곰인형이 그려진 찻잔세트, 무너진 담장 일부 등을 도자기로 제작했다. 사람들이 가깝게 생각하는 물건들을 도자기로 만들어서 달라지는 가치에 대해 이야기해 왔다. 쉽게 버리는 물건도 특별한 의미를 부여하면 영원히 간직할 수 있다는 게 그녀의 생각이다.

그녀는 지난해 마리아 린드 총감독에게 참여 제안을 받았을 때 흔쾌히 승낙했다고 한다.

“올해 전시 주제가 ‘제8기후대(예술은 무엇을 하는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사람들을 예술 속으로 끌어올릴 수 있을까’라고 평소 했던 고민이랑 딱 맞았어요. 예술은 결과물보다는 과정을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애니는 지난 2012년 덴마크에서 얇은 도자기판 위에 꽃 화분을 얹은 작품을 만들기도 했다. 사람들이 화분에 물을 주러 갈 때마다 밝으며 도자기판이 조금씩 깨지도록 고안했다. 점점 가루가 돼가는 도자기판을 통해 사람들이 화분을 얼마나 잘 돌보고 있는지 시각적으로 표현한 작품이다.

이번 비엔날레에서도 관객 참여형 작품을 선보이기로 한 애니는 지난 4월 리서치를 하기 위해 광주를 방문했을 때 깜짝 놀랐다. 서울에 비해 문화예술이 낙후된 줄 알았는데 국립아시아문화전당, 비엔날레전시관, 각종 박물관 등 규모가 큰 시설들이 많았다. 무엇보다도 마음에 든 건 알록달록한 색깔이었다. 시내 문구점에서 본 커터칼 세트, 마트에 진열된 상품들, 심지어는 건물 내부에 철해진 주황색 페인트도 애니의 눈에는 신기해보였다.

지금도 속소인 서구 농성동 아시아창작스튜디오에서 매일 시내버스를 이용해 오가고 있지만 힘들기 보다는 재미를 먼저 느끼고 있다.

“광주 첫 인상은 일본, 대만과 비슷했어요. 이곳저곳을



비엔날레 전시공간 ‘에브리데이 어 레인보우’ 내부 예상도. 수퍼마켓처럼 실제 상품을 진열할 예정이다.

돌아다니다 보니 컬러풀한 색채들이 눈에 들어오더군요. 특히 문구점이 제일 흥미로웠어요. 어딜 보든 무지개빛깔 상품들이 보였어요. 여기서 착안해 작품을 제작하기로 결정했죠.”

붉은색 돼지 저금통, 크로스 클로그 신발, 모래놀이 장난감, 아기 젓병, 영어책 등을 구입했다. 홍콩으로 가지고 돌아가 석고로 틀을 뜬 후 지난달 12일부터 광주에서 도자기를 굽는 작업을 이어오고 있다. 쉽지 않은 청자 제작이지만 지식도요 손동진 명장이 큰 힘이 돼주고 있다.

“손동진 명장 뿐 아니라 홍콩에서 데리고 온 사람들하



‘2016 광주 비엔날레’ 참여작가 애니 라이 군 완이 광주시 남구 빛고을공예창작촌에서 생활용품을 도자기로 재해석한 전시작품을 설명하고 있다.

고 같이 작업하고 있습니다. 항상 혼자 예술활동을 했는데 다른 사람과 함께 일하는 건 이번이 처음이에요. 질문도 하고 생각도 나누고 같이 하는게 예술이구나’ 배웠죠.”

전시 공간도 특별하게 꾸며진다. 비엔날레 전시관 외부에 자그만한 부스를 설치할 계획이다. 내부는 수퍼마켓처럼 실제 상품들로 꾸밀 생각이다. 부스 이름은 ‘에브리데이 어 레인보우(Every Day a Rainbow)’로 정했다.

비엔날레 인근 식당, 상가 등 5곳에는 도자기 작품을 전시한다. 식당에는 물병, 서점에는 책 작품을 전시하는 방식이다. 관람객들이 부스에 비치된 지도를 보며 진열된 상품과 똑같은 도자기 작품을 찾아다닐 수 있도록 구상했다.

“관람객들이 작품을 통해 즐거움을 느꼈으면 좋겠어요. 직접 발로 걸으며 예술은 멀리 있지 않다고 생각하도록 만드는 게 목적이죠.”

하지만 작업을 진행하며 겪은 광주에 대한 실망감도 감추지 않았다.

“도자기를 설치할 외부 상가를 구해야하는데 쉽지 않아요. 혹시라도 장사에 피해를 볼까봐 다들 꺼리는 상황이죠. 멋진 문화시설을 갖춘 곳이지만 아직 일상 생활 속까진 예술에 대한 인식이 스며들지 않은 것 같아요. 남은 기간 어떻게 거리를 좁혀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죠.”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전남대병원갤러리 백준선 초대전

31일까지...원색의 한국화 20점 선봬



‘어느 여름’

꽃을 소재로 희망을 전하는 백준선 작가가 31일까지 전남대병원 CNUH갤러리에서 개인 초대전을 연다.

백 작가는 무더운 여름을 맞아 원색으로 자연 풍경을 시원하게 표현한 한국화 20점을 선보인다.

작가는 기존 수묵 담채로 그린 문인화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했다. 담백하고 여백미가 느껴지는 한국화와 달리 분채를 사용해 화면 가득 진한 채색을 보이며 밝고 힘찬 느낌을 전한다.

작품 ‘어느 여름’은 화면 가득 연꽃을 그려 초록색으로 채웠다. 멀리 갈수록 진한 색에서 점점 옅은 색으로 표현한 연꽃은 지평선 부근에서는 하얀 하늘과 맞닿으며 시각적 여유를 선사한다.

또 짙은 녹색 바탕에 꽃나무는 크게, 웅기종기 거니는 사람들은 작게 그린 작품은 자연 속에서 더위를 피하는 모습에 떠오른다. 작가는 넓게 펼쳐진 푸른 바다, 만개한 꽃 등을 통해 희망과 꿈, 행복에 대해 이야기한다.

홍익대 미술대학원 동양화과를 졸업한 백씨는 개인전 13회, 단체전 350여회에 참여했다. 대한민국 미술대전 특선 2회, 광주시 미술대전 대상, 전국무등미술대전 대상, 전남 미술대전 우수상 등을 수상했고 한국미술협회 취임회원·한국미술광주지회 문인화분과위원장·대한민국미술대전 초대작가 등으로 활동하고 있다. 문의 062-220-5104.

/김용희기자 kimyh@kwangju.co.kr

희망문화협동조합 ‘연극과 함께하는 영상제작교실’

희망문화협동조합(이사장 임준형)은 꿈다락 토요문화학교 ‘연극과 함께하는 영상제작교실’을 진행한다.

희망문화협동조합은 북구청소년수련관, 북구청소년상담복지센터와 함께 청소년 관련 연극과 영상 관련 특화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개발, 운영하고 있다.

연극 분야는 화술 수업, 연기 수업, 연극 워크숍을 진행하고 영상분야에서는 시나리오 작법, 영상 촬영 및 편집, 시사회 등을 진행한다.

강사로는 차두옥(동신대 방송연예학과 교수), 김정희(영화 강사), 양정인(연극배우, 연출가)씨 등이 참여한다.

‘연극과 함께하는 영상제작교실’은 초등학교 4학년부터 중·고등학교 및 학교 밖 청소년을 대상으로 운영한다. 교육은 오는 13일부터 11월 19일까지 15주 과정으로 북구청소년수련관(매주 토요일 오전 9시30분~12시30분)에서 진행된다. www.ok1388.kr. 문의 062-268-1388.

/김미은기자 mekim@kwangju.co.kr

아시아문화중심도시 명물 박물관 탄생!!

세계 70여개국에서 수집한 조각·장식 6,000여점 전시

세계 조각·장식 박물관

World Sculpture·Ornament Museum

☎(062) 222-0072, 226-5800 일요일 휴관

(구. 카톨릭센터 뒤 금남문선 1층)

아프리카 소나조각

앙코르 전시회

400여점 전시

8·15 광복절 기념

너릿재 옛길

제2회 화순~광주 동구

혹서기 마라톤대회

2016년 8월 15일(월) 오전 8시 출발

접수 및 문의 ☎(061) 375-1288 <http://marathonworld.kr/>

장 소 | 너릿재 옛길(화순~광주 동구 구간 4.2195km)

출 발 | 너릿재 옛길 주차장(화순 소아르 갤러리 앞)

코 스 | 화순 소아르 갤러리~너릿재~너릿재 옛길 주차장(광주 동구)

종 목 | 풀(5회왕복), 25km(3회왕복), 8.5km(1회왕복)

참 가 비 | 25,000원

접수인원 | 선착순 1,000명(입금기준)

주최 | 광주일보사 · 마라톤세상

주관 | 화순군육상협회 · 마라톤세상

후원 | 화순군, 광주광역시 동구